“장기이식 기다리는 3만9천명에 새 생명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7월 11~12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정리하고 떠나는 기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생명나눔실천본부 ·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 희망선물’

⑦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현장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나눔, 7월 11~12일 이틀 동안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캠페인 진행
설명 듣고자 어르신들 발길 줄이어
“희망등록 한 난 생명나눔 홍보대사”

장마와 불볕더위가 번갈아 가며 기승을 부리던 7월 11일, 서울 종로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 2층에 찜통 더위를 가르는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복지센터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의 의미와 희망등록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진 것.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센터 로비에 테이블 2개를 설치하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특히 이날은 코로나19로 인해 2년여 만에 센터에서 캠페인이 진행돼 주최하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측은 물론이요, 센터 측 역시 활기가 넘쳤다.

“살아있을 때 기증하는 것인가요?”

“자식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지요?”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한 이라면 누구나 기증할 수 있나요?”

로비에 설치된 부스를 지나가던 어르신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장기기증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다. ‘장기기증’ 이라는 단어에 처음에는 경계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만 생명나눔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는 어르신들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 **“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세요.”**
> **“짧은 시간을 투자하면 사후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날 센터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한 어르신 중 최장수인 김00(93세) 어르신은 “죽으면 육신은 다 쓸모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후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명나눔 측의 설명을 듣고 희망등록을 결심했다”면서 “희망등록을 하고 나니 뿌듯하다. 자녀들에게도 제도를 잘 설명해 꼭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년 전 캠페인에서 이미 각막을 희망등록했다는 전00(83세) 어르신도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한 이라면 누구나 기증할 수 있다니 나이 들어 보람된 일을 하나하나 추가한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면서 “내가 곧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라는 마음으로 희망등록을 망설이고 있는 친구들에게 생명나눔을 권선하는 것은 물론이요, 만약을 대비해 앞으로 더욱 건강한 몸을 유지할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들은 “장기기증이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지만, 생명나눔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생각이 정리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게다가 사후 장기기증을 하게 되면 국가 법령에 따라 보조금과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정리하고 떠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문00(86세) 어르신은 “죽으면 다 쓸모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되물으며 “사후 화장이나 매장으로 없어질 몸을 기증해 간절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간다고 생각하니 기뿐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장기기증 참여가 매우 저조한 편이다. 오랜 유교문화권에 있었다 보니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체를 함부로 훼손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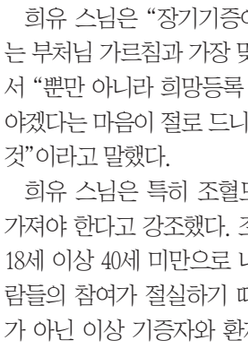
그러나 7월 11~12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된 희망등록 캠페인에서는 설명을 들으러 찾아오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형열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고 막상 기증 상황에 닥쳤을 때 자녀들의 반대가 심해 넘어야 할 벽이 높지만 이틀 동안 부스에 어르신들 방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어르신들의 의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장 희유 스님은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죽음과 관련한 상담과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생명나눔에 대한 인식이 꽤 긍정적”이라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타인을 위해 마음을 나누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 생명나눔 운동이 불교계를 넘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총 210만 3263명으로 전 국민의 약 4%가 희망등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장기기증은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 수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2021년 말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3만 9261명이다.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2019년 3만 29990명, 2020년 3만 5852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가장 숭고한 으뜸 보시”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시 중 가증 으뜸이 되는 것은 장기기증”이라고 강조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해 수년 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해오는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부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에서 웰다잉을 주제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준비된 임종을 맞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죽음에 대한 준비이자,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 어르신들의 평가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만큼 상담과 프로그램에는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도 포함돼 있다.

희유 스님은 “사람은 죽으면 결국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서 “죽음을 앞뒀을 때 가장 숭고한 보시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 힘쓴다”고 설명했다.

희유 스님은 동국대에 재학 중이던 2000년,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함께 시신 기증 서약까지 했다. 의과대학에 다니던 속가 친동생에게서 해부학 실습을 위한 시신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스님은 교정에 캠페인을 나온 생명나눔실천본부 부스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즉석에서 희망등록했다.

희유 스님은 “장기기증이야말로 보시행을 강조하는 부처님 가르침과 가장 맞닿아 있는 실천행”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희망등록 후에는 현재를 더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드니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희유 스님은 특히 조혈모세포 희망기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혈모세포 기증의 경우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나이제한이 있기에 젊은 사람들의 참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혈연관계가 아닌 이상 기증자와 환자의 조직접합항원이 일치해 조혈모세포를 이식할 수 있는 확률은 2만분의 1로 매우 희박하다. 실제 지난해 가족이 아닌 비혈연 관계의 조혈모세포 기증자로부터 이식 받은 사람은 542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조혈모세포 이식 대기자는 4496명이다. 스님이 평균 연령대가 낮은 서울노인복지센터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을 권선하는 이유다.

희유 스님은 “나의 작은 실천으로 누군가에게 ‘내일’과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다”면서 “게다가 희망등록 경험은 사회복지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위해서라도 많은 이들이 희망등록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 1:1 집중관리
- 성사위주
- 신뢰·정확한 정보
-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